

마다가스카르 구술 문학을 통해서 본 전설 속 인물의 원형 찾기와 악의 유희성 : '코토펬치(Kotofetsy)'와 '마하카(Mahaka)'를 중심으로*

조 지 숙

(가천대학교 강사)

◆ 국문초록

본 연구는 아프리카 대륙 동쪽에 위치한 섬 마다가스카르에서 구전된 이야기들을 19세기 프랑스에서 편찬, 발행한 『말라가시 대중 콩트 *Contes Populaires Malgaches*』(1893)를 중심으로 마다가스카르 구술 문학에 등장하는 전설 속 주요인물과 그들의 '유희성'을 살펴보고자 하는 데 있다.

특히, 마다가스카르 전설 속 인물들과 관련하여 '악의 유희성'에 주목할 것이다. 마다가스카르 구전 이야기에서는 누군가를 속이거나, 모함하거나, 혹은 허풍을 떨면서 '재미'를 끌어낸다. 그러나 단순히 '재미'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조언을 주고자 하는데, 그것은 선함의 세계를 강조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실질적 세상을 보여주고자 함으로 직설적이고 잔인하다.

악의 유희성을 대표하는 인물은 메리나족 Merina(이메리나족 merina이라고도 함) 이야기에 등장하는 '코토펬치 Kotofetsy'와 '마하카 Mahaka'다. 코토펬치와 마하카에게서 구현되는 모습은 희극적 악당의 모습이다. 그런데 그들이 보여주는 희극적 행위는 생생하며 잔혹하다. 즉 그들을 주인공으로 하는 구전 이야기는 잔인한 유희성을 적나라하게 드러내며 마다가스카르의 독특한 구술 문학과 문화적 전통을 보여주고 있다.

그런데 무엇보다도 중요한 그들의 역할은 인류의 보편적 원형을 지니고 있다는 것이다. 코토펬치와 마하카는 여러 문화권의 보편적 원형의 모습을 함축하는

* 이 논문은 2019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NRF-2019S1A5A2A03042645).

인물로, 그들의 이야기에는 마다가스카르의 다양한 관습과 풍습은 물론 문화적·신화적 서사구조의 보편적 원형을 살펴볼 수 있는 중요한 사료가 내포되어 있다.

주제어 : 구술 문학, 악, 유희성, 보편적 원형, 서사구조, 신화

1. 서론

본 연구는 마다가스카르 구술 문학에 등장하는 전설 속 주요인물과 그들의 ‘유희성’을 살펴보고자 하는 데 있다. 이 연구를 위해서 마다가스카르에서 구전된 이야기들을 19세기 프랑스에서 편찬, 발행한 『말라가시 대중 콩트 *Contes Populaires Malgaches*』(1893)가 주된 자료군이 될 것이다.

마다가스카르 문학은 대체로 세 가지 갈래로 나누어 생각해 볼 수 있다. 그것은 전통적인 민중 구전, 말라가시 언어로 기록된 문학 그리고 프랑스어로 쓰인 현대 마다가스카르 문학 등이다.¹⁾ 이 가운데서 본 연구의 대상은 민중 구전을 프랑스어로 옮긴 텍스트다.

본 연구의 대상으로 선택한 텍스트는 말라가시어로 된 이야기를 프랑스어로 번역한 것인데, 번역자는 가브리엘 페랑 Gabriel Ferrand(1864~1935)으로, 프랑스, 마르세유 출신인 그는 동양학자, 작가, 그리고 마다가스카르 언어전문가로 활동했고, 마다가스카르어 사전을 편찬하기도 했다.

가브리엘 페랑의 ‘구술 이야기 모음집’에는 마다가스카르의 독특한 생활 방식과 인물들이 소개되어 있고, 그 인물들의 특징적인 행위가 묘사되어 있다. 그것은 마다가스카르의 전통적 생활양식과 정신문화와 이

1) 김현숙, 「마다가스카르의 문학과 정체성 : 시인 라베아리벨로이 작품을 중심으로」, 아프리카 학회지 제27집, 2005.

어지며, 이러한 마다가스카르의 구술 이야기 속에 나타난 문학적 특징은 마다가스카르의 독특한 정신세계와 주변 국가와의 이질적 문화 양태, 특히 마다가스카르를 식민 지배했던 프랑스의 문화와 문학과의 비교분석을 가능케 한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프랑스 문학과 비교보다는, 보다 포괄적으로 다양한 문화에 나타나는 인류 보편적 신화의 원형을 근간으로 마다가스카르 문화와 문학에 집중하여, 마다가스카르 전설 속 인물들과 관련된 ‘악의 유희성’에 주목할 것이다. 마다가스카르 구전 이야기에서는 누군가를 속이거나, 모함하거나, 혹은 허풍을 떨면서 ‘재미’를 끌어낸다. 그러나 단순히 ‘재미’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조언을 주고자 하는데, 그것은 선함의 세계를 강조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실질적 세상을 보여주고자 함으로써 가차 없이 직설적이고 현실적이다.

그러한 악의 유희성을 대표하는 인물은 메리나족Merina(이메리나족 Imerina이라고도 함) 이야기에 등장하는 ‘코토펬치Kotofetsy’와 ‘마하카Mahaka’다. 이들은 의형제까지 맺은 관계이지만, 서로를 속이기도 하고, 한패가 되어 다른 사람, 특히 부유한 자들을 곤경에 몰아넣기도 한다. 가브리엘 페랑은 작가 서문에서 코토펬치와 마하카를 유럽의 전설 속 의적과는 사뭇 다른 성향을 보인다는 견해를 보이지만, 사실 그들을 유럽의 전설 속 인물들과 비교하는 것 자체가 오류다. 코토펬치와 마하카는 유럽과는 전혀 다른 문화와 전통 속에서 탄생한 인물들이기 때문이다.

코토펬치와 마하카는 기사도적 용맹과 우아함을 나타내고자 하는 인물이 아니다. 코토펬치와 마하카에게서 기대할 수 있는 모습은 희극적 악당의 모습이다. 그런데 그들이 보여주는 희극적 행위는 생생하며 잔혹하다. 즉 그들을 주인공으로 하는 구술 이야기는 잔인한 유희성을 적나라하게 드러낸다. 그러나 그들은 마다가스카르 구전 전통을 구현하는데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 그들이 등장하는 이야기 속에서 마다가스카르의 독특한 전통을 발견할 수 있고, 그 전통은 현재까지도 마다가

스카르의 풍습과 관습 그리고 미디어로도 재탄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무엇보다도 중요한 그들의 역할은 인류의 보편적 원형을 지니고 있다는 것이다. 코토펬치와 마하카는 여러 문화권의 보편적 원형을 함축하는 인물로, 그들의 이야기에는 마다가스카르의 다양한 관습과 풍습은 물론 문화적·신화적 서사구조의 보편적 원형을 살펴볼 수 있는 중요한 사료가 내포되어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이 두 인물을 중심으로 전개해 가고자 한다.

두 인물에 대한 분석에 들어가기에 앞서 마다가스카르의 독특한 직업인 ‘음피카바리mpikabary’에 대해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음피카바리는 마다가스카르의 구전 이야기 ‘카바리kabary’를 사람들에게 들려주는 역할을 하는 사람을 칭한다. 마다가스카르에서 오랜 세월 동안 대중들에게 전해져 내려온 구술 문학 형식의 이야기를 ‘카바리’라고 하며, 카바리는 마다가스카르 고원 지대, 이메리나족의 왕들과 관련이 있다. 분석의 대상인 코토펬치와 마하카는 이메리나족으로 구전 이야기 카바리로 전승되었다고 추정하는바, 본 연구는 우선 마다가스카르의 구전 전통인 ‘카바리’와 ‘음피카바리’ 그리고 이와 관련된 이메리나족 왕에 대한 논고로 시작하고자 한다.

II. 마다가스카르 구술 문화와 문학의 특징

1. 마다가스카르의 전통적 구술 문화 :

‘카바리Kabary’와 ‘음피카바리mpikabary’

구술 이야기는 일종의 ‘아르케’(신화와 철학 사이의 경계선)라 할 수 있으며, 신화와 철학 두 영역을 넘나들기도 하고 그 자체로서 존재하기도 한다. 따라서 구술 이야기 연구는 그것을 소유하고 있는 민족의 정신 문화의 본질을 이해하는 데 중요하다. 아프리카 대륙에 속하지만, 주민

들은 대부분 말레이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또한 프랑스의 식민지이기도 했던 마다가스카르는 아프리카, 동남아시아, 프랑스 등 다인종·다문화가 혼재하여 본연의 독특한, 혹은 뒤섞인 문화적·문학적 특징을 보인다.

그 가운데 두드러진 문화는 바로 ‘카바리’다. 카바리는 ‘담화, 연설 discours’이라는 의미의 아랍어 ‘kabar’에서 유래했다. 그러나 일상적인 담화보다는 소리높이 외치는 웅변에 가깝다. 마다가스카르의 카바리는 오랜 구전 문학 형식의 이야기를 의미하며, 카바리를 전달하는 사람을 ‘음피카바리’라고 한다. 카바리는 연사인 음피카바리에 의해 대중에게 전달되는데, 단순한 전달이 아니라 음피카바리의 상상력이 보태진다. 문자가 존재하지 않았던 마다가스카르²⁾의 구술 이야기 수집이 가능했던 것은 이야기 전달자인 이 음피카바리 덕분이다.

그러나 카바리는 초기에는 오로지 대중문화로만 존재했던 것이 아니다. 카바리의 기원은 1360년에서 1380년까지 ‘파논고아바나Fanongoavana’ (14세기 마다가스카르의 수도)를 지배했던 왕 ‘안드리아남보니라비나 Andrianamboniravina’의 아들 ‘안드리안드라노라바Andriandranolava’ 왕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왕 안드리아남보니라비나에게는 ‘안드리아모라오니Andriamoraony’와 ‘안드리안드라노라바’라는 두 아들이 있었고, 둘째 왕자가 왕이 되었다. 마다가스카르 부족 가운데 ‘바짐바족Vazimba’³⁾은

2) 최준수, 「마다가스카르의 언어 정책과 말라가시어 진흥을 위한 일반언어학적 변론」, 『한국아프리카학회지』, 제27권, 2008, p. 196.

“18세기 말부터 19세기 초엽에 걸쳐 안타나나리보를 중심으로 하는 중앙 고원 지대에 자리를 잡은 메리나 왕국이 마다가스카르를 실질적으로 통일하였는데 1810년부터 1828년까지 메리나 오아국을 통치한 라다마(Radama) 1세 때에 영국선교사들에 의해서 로마자를 사용하는 메리나 말라가시어의 표기법이 완성되었으며 이 표기법을 통하여 역사와 마다가스카르 전역에 퍼져 있는 구전 문학을 기록하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말라가시어로 쓰인 많은 문학 작품들도 활발하게 나왔다.”

3) 바짐바족은 베조라는 부족과의 싸움에서 밀려 마다가스카르 내륙으로 밀려난 부족이다.

Gérard Naal, *Abrégé d'histoire de Madagascar*, L'Harmattan, 2015, p. 12, 참조.
“Les Vazima et les Vezo, les uns s'enfonçant dans l'intérieur des terres, les autres

안드리아모라오니에게 ‘카바리가 무엇입니까?’하고 묻는다. 그는 바짐 부족에게 ‘내가 카바리를 만들지 않았다. 카바리는 안드리안드라노라바가 만들었다.’⁴⁾고 답했다고 전해진다.

또 이후의 왕 ‘안드리안치미토비아민안드리안데이브Andriantsimitoviaminandriandehibe’에게 아들 둘이 있었는데, 첫째 아들 ‘라자카치타카트란드리아나Razakatsitakatrandriana’가 아니라 부족민들의 합의로 둘째 아들 ‘안드리아마시나발로나Andriamasinavalona’가 왕이 되었다. 그때 부족민의 합의 방식으로 사용된 것이 카바리였다. 안드리아마시나발로나(안드리안자카나발론담보Andrianjakanavalondambo라고도 함) 왕의 재임 기간은 1675년에서 1710년⁵⁾으로 그는 재임 기간 중 많은 개혁을 이뤄냈다. 그 가운데서 여성에게 남편을 고를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한 것인데, 카바리라는 민주적 합의의 방식으로 선출된 왕이었던 만큼 스스로 그러한 부족민들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한 노력을 했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이처럼 카바리는 왕에게서 왕에게로 전해져 왔고, 초기 카바리는 부족민들과의 합의를 구할 때 사용되던 방법이었다. 즉 카바리는 왕과 부족민들 사이의 의사소통과 정보의 수단으로 사용되었다. 그 후 식민지 시대에도 카바리는 여전히 존재했고, 여러 다양한 형태의 카바리가 생겨났다. 카바리의 종류⁶⁾는 다음과 같다.

restant sur les côtes.”

4) http://www.unesco.org/new/fileadmin/MULTIMEDIA/HQ/CI/CI/pdf/mow/nomination_forms/madagascar_the_kabary.pdf

“Kabary dates back to King Andriandranolava, son of Andrianamboniravina who reigned in Fanongoavana from 1360 to 1380 (Andrianamboniravina had two sons, Andriamoraony, the oldest, and andriandranolava, the youngest). It is said that the people named Vazimba at that time asked Andriamoraony : «What is Kabary?» and Andriamoraony would have answered them : «I didn't create it, Andriandranolava did.»”

5) Gwyn Campbell, *Bondage and the Environment in the Indian Ocean World*, palgrave, 2018, p. 58 참조.

6) <http://www.unesco.org/new/fileadmin/MULTIMEDIA/HQ/CI/CI/pdf/mow/nominati>

〈표 1〉 카바리의 종류와 그 의미

카바리의 종류	의미
카바림파니아카나 KABARIM-PANIAKANA	행정, 정치, 공공문제 관련의 국정 연설
카바리암판데베나나 KABARY AM-PANDEVENANA	장례연설
카바리암파남바디아나 KABARY AM-PANAMBADIANA	결혼식 때 행해지는 연설
카바리안다노나나 KABARY AN-DANONANA	여러 행사 때 행해지는 연설

카바리의 종류가 다양해짐에 따라서 카바리를 전문적으로 행할 사람들이 등장하게 되었고, 그들이 음피카바리다. 음피카바리의 주요 역할⁷⁾을 보자면 다음과 같다.

- 1) 모든 관중이 공연에 참여하도록 카바리를 활용할 것.
- 2) 미래를 위해 카바리가 반드시 성공적으로 활용되도록 말라가시인들의 마음에 새기도록 할 것.
- 3) 관중을 노련한 배우처럼 참여하도록 만들기 위해서 개인적·집단적 감각, 창조성, 경쟁심, 자신감을 마다가스카르 관중 모두에게 심어줄 것.
- 4) 전개되는 문화적 반응에서 얻어진 것을 정착시킬 것.
- 5) 카바리의 가치를 유지할 것.
- 6) 말라가시어를 보존하고 지킬 것.

마다가스카르의 음피카바리는 서부 아프리카에서 구전되는 이야기를 전승하고 유지한다는 점에서 ‘그리오griot’⁸⁾와 유사하겠지만, ‘공연한

on_forms/madagascar_the_kabary.pdf, 참조.

7) Ibid., 참조.

다’는 측면에서 음피카바리는 오히려 우리의 마당극과 더 비슷할 것이다. 즉 관중을 공연에 적극적으로 끌어드리는 공연방식과 창조성을 발휘하는 음피카바리의 역량을 중시한다는 면에서, 창작성보다는 전통의 고수라는 역할에 초점을 두는 그리오와는 차이가 있다. “최고의 거장 그리오들은 독창적이거나 애쓰지 않는다.”⁹⁾는 것이다.

그리오와 더 큰 차이가 있다면, 음피카바리에게는 여러 명의 경쟁 상대가 있다는 점이다. 창조성을 중시하는 음피카바리에게는 경쟁자가 존재하며, 따라서 경쟁자인 다른 음피카바리가 이미 이야기 구현 중에 사용했던 격언이나 언어유희의 되풀이나 반복은 허용되지 않는다.

그렇다면 구전되는 이야기를 전하는 자가 음피카바리라고 한다면 구전 이야기의 반복은 불가피하지 않을까 하는 의문이 생길 수 있다. 구전 이야기는 그대로 전달하되 전달과정에서 음피카바리의 언어유희와 격언의 독창적 재능이 요구된다는 것이다. 이야기 전달과정만 본다면 서부 아프리카의 그리오가 음피카바리보다 더 보수적이라 하겠다. 그러나 그리오는 여성 그리오(그리오프griotte)도 존재한다. 반면에 음피카바리는 남성만이 할 수 있다. 따라서 사회적 측면에서 보면 남성만이 그 역할을 할 수 있는 음피카바리의 세계가 더 보수적이다. 이러한 사실은 마다가스카르가 완고한 남성 중심의 사회고, 마다가스카르 구전 전통과 이야기를 통해 흔히 발견된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음피카바리의 특별한 역할은 카바리의 웅변적 공연 안으로 관중을 기꺼이 참여시켜야 한다는 것이다. 이 전통이 현재까지도 지속되는 주된 이유 중 하나는 상대를 발화에 적극적으로 참여토록 유도하고, 또 상대는 타인의 발화 행위에 능동적으로 참여함으로써 상호 간에 직접적이고 생동감 넘치는 소통의 장을 마련하고자 하는 데

8) ‘그리오griot’는 서부 아프리카의 역사가, 음유시인, 철학자 등 다양한 역할을 하면서 구술 문화와 문학을 전승하는 이야기꾼이다.

9) Mario Corcuera Ibáñez, *Tradition et littérature orale en Afrique noire, Parole et réalité*, L'Harmattan, 2009, p. 114.

“Les meilleurs griots ne se soucient pas d'être extrêmement originaux.”

있기 때문이다. 과거, 카바리가 단순히 구전 전통의 계승이 아닌 왕인 지배층과 피지배층인 부족민들 간에 소통의 수단으로 사용되었다면, 분명 마다가스카르는 소통을 중시한 민주적 사회였고, 소통을 중시하는 전통은 현재도 여전히 유효하여, 그 전통은 관중과의 참여와 교감으로 구현되고 있다. 바로 이러한 사실은 오랜 세월 문자가 아닌 구전 전통 사회가 지속했다는 것을 나타내는 증거가 되며, 문자보다는 말이 소통과 교감에 있어서 우위를 차지하는 수단이 됨을 보여주는 증험이 된다.

다음으로는 구전 이야기의 실례로 마다가스카르의 전설 속 인물 ‘코토펬치’와 ‘마하카’를 보고자 하는데, 카바리와 음피카바리에 이어서 두 인물에 대해 다루는 이유는 그들의 대화 속에서 카바리의 흔적을 발견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음피카바리는 공연자가 서로 이야기를 주고받는 ‘만담’의 형식으로 진행된다고 볼 수 있고, 구전되는 이야기 속에서 코토펬치와 마하카가 주고받는 대화는 음피카바리의 형식을 구현하는 데 있어서 알맞은 이야기 형식을 갖추고 있다.

하루는 남쪽에서 오고 있던 코토펬치와 북쪽에서 오고 있던 마하카가 길에서 마주쳤다. 마하카가 코토펬치에게 말했다.

- 어디서 오는 길이야, 남쪽에 뭐 새로운 일 있어?

코토펬치가 대답했다.

- 거기는 모든 게 혼돈 상태야. 하늘과 땅이 완전히 혼란에 빠져있어. 나는 산으로 도망쳤는데, 그 산마저 무너져버렸어. 나는 벌판으로 내려왔는데, 그 땅도 흔들렸어. 몸을 숨기려던 숲에서는 나무가 넘어졌어. 그런 천재지변 앞에서 나는 죽음을 모면하기 위해 북쪽으로 달렸어. 그런데, 북쪽에서 사람들은 어떻게 버텼어?

마하카가 대답했다.

- 나는 거기서 더 대단한 것을 보았어. 대규모 카바리에 모인 사람들은 거짓말쟁이의 머리를 모두 베기로 결정했어. 그래서 나는 남쪽 길을 택했지.

코토펬치는 포복절도했고 마하카는 그를 따라 웃었다. 이들은 서

로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고, 가던 길을 계속해서 함께 걸어갔다.¹⁰⁾

코토펬치와 마하카의 대화에서도 ‘카바리’가 등장한다. 이 카바리에 대해 가브리엘 페랑은 “카바리는 나라의 일을 다루는 공공회의를 의미한다. 이 회의에서 법, 법령, 칙령이 국민에게 공포된다.”¹¹⁾라고 설명하고 있다. 페랑이 설명하는 카바리는 카바리의 여러 범주 가운데 ‘카바림 파니아카나’¹²⁾에 해당한다. 그런데 여기서 주목할 것은 코토펬치와 마하카의 대화다. 음피카바리는 만담형식으로 이루어지는 공연을 하는 자로, 이 둘의 대화는 음피카바리가 공연하기에 알맞은 내용이다.

문자화된 자료가 부재한 민족의 역사를 추적하기 위해서는 구전되어 지금까지 남아 있는 여러 관습이나 행사를 살펴보는 것이 필요하며, 그 흔적이 마다가스카르에서는 카바리와 음피카바리로 이어지고 있음을 보았다. 언급했듯이 코토펬치와 마하카는 여러 경로를 통해 마다가스카

10) Gabriel Ferrand, *Contes Populaires Malgaches*, Ernest Leroux, éditeur, 1893, pp. 205-206.

UN jour, dit-on, Kotofetsy et Mahaka venant l'un du Sud, l'autre du Nord, se rencontrèrent sur la route. Mahaka dit à Kotofetsy : « Qu'y a-t-il de nouveau dans le Sud, d'où tu viens. » — « Tout est en désordre là-bas, répondit Kotofetsy. La terre et le ciel sont en plein bouleversement. Je me suis enfui sur une montagne, elle s'est effondrée; je suis descendu dans la plaine, elle tremblait ; les arbres tombaient dans la forêt où je voulais me mettre à l'abri. En présence d'un cataclysme pareil j'ai couru vers le Nord pour échapper à la mort. Eh! comment se porte-t-on dans le Nord? » — « J'y ai vu, répondit Mahaka, une chose encore plus extraordinaire : le peuple, réuni en grand *kabary* a décidé de couper la tête à tous les menteurs. Aussi, ai-je immédiatement pris la route du Sud. « Kotofetsy se pâma de rire à ces paroles et Mahaka l'imita; et ils continuèrent la route ensemble sachant bien qu'ils mentaient tous deux.

11) *Ibid.*, p. 206.

“Réunion publique où on traite des affaires de l'État. Les lois, décrets, ordonnances sont communiqués au peuple dans ces réunions. Ils entrent en vigueur du jour où ils ont été lus à Tananarive.”

12) <표 1> 참조.

르에 정착한 민족 가운데 18개 부족을 통일시킨 이메리나족에 속하는데, 그들의 구전 이야기를 통해 마다가스카르인의 놀이 문화와 관습의 예, 특히 마다가스카르 다수 부족을 차지하는 이메리나족의 풍습을 발견할 수 있다. 또한, 코토펬치와 마하카의 이야기는 카바리와 음피카바리를 통해 구전으로 꾸준히 전해져 오다가 문자화되고 20세기를 지나 21세기인 현재까지도 미디어를 통해 이어지고 있는데, 현재 마다가스카르에서 애니메이션으로 제작되어 방영¹³⁾되고 있다. 언어는 말라가시어로 되어있고, 이것은 음피카바리의 주요 역할 가운데 하나, 즉 ‘말라가시어를 보존하고 지킬 것’이라는 의무가 현대에서도 유효하다는 사실에 대한 증거라 하겠다.



〈그림 1〉 코토펬치와 마하카 (1)



〈그림 2〉 코토펬치와 마하카 (2)

다음 장에서는 구전 이야기 속에 존재하는 두 인물 코토펬치와 마하카에 대해 더욱 구체적으로 알아보고자 하는데, 먼저 마다가스카르 구술 문화에서 어떻게 등장하게 되며 또 그들의 원형을 과연 가브리엘 페랑의 주장대로 로빈 후드나 로브 로이 같은 전설의 도적들과의 비교에서 발견하는 것이 타당한지, 타당하지 않다면 그들의 원형을 어디에서 찾을 수 있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13) <https://www.youtube.com/watch?v=oIUrx1xcSJs> 참조.

2. ‘코토페치Kotofetsy’와 ‘마하카Mahaka’의 보편적 원형 찾기 : 동·서양의 ‘형제 신화’와의 비교

‘코토페치’와 ‘마하카’는 메리나족의 전설 속 인물들이다. ‘Merina’는 두 가지 의미를 지니고 있는데, 하나는 마다가스카르를 다스리던 왕족을, 다른 하나는 이곳에 정착한 종족을 의미한다¹⁴⁾.

코토페치와 마하카에 대한 이야기를 수집하고, 프랑스어로 옮긴 가브리엘 페랑에 따르면, 코토페치와 마하카는 자기네 유럽의 전설적 도적들, 예를 들어 ‘카르투슈Cartouche¹⁵⁾와 망드랭Mandrin¹⁶⁾, 로빈 후드 Robin Hood, 그리고 로브 로이Rob Roy¹⁷⁾처럼 때로는 매력 있게 보이도록 하는 너그럽거나 기사도적인 면은 없는, 늘 비겁하고 저속한 모습만을 보이는 도둑들¹⁸⁾이라는 것이다.¹⁹⁾

14) Jean-Paul Mayer, *Dictionnaire Insoilite de Madagascar*, Cosmopole, 2013, p. 85. “Dès le XVII^e siècle et jusqu’à la fin du XIX^e, les Merina s’imposèrent dans la vie politique de Madagascar.”

17세기부터 19세기 말까지 메리나족은 마다가스카르를 통치하고 있었다.

“D’origine asiatique(indonésienne), ils[les Merina] arrivèrent autour du X^e siècle et s’installèrent au centre de l’île, sur les hauts plateaux autour de l’actuelle Antananarivo, formant au XVI^e siècle le royaume d’Imerina.”

아시아를 기원으로 메리나족은 5세기 정도에 이 섬 중앙, 현재 안타나나리보 주변 높은 고원 지대에 정착한다.

15) 루이 도미니크 카르투슈Louis Dominique Cartouche(1693~1721) : 필립 도를레앙 섭정 시대 도적두목.

16) 루이 망드랭Louis Mandrin(1725~1755) : 프랑스의 로빈 후드라 불리는 인물.

17) 롭 로이 맥그리거Rob Roy MacGregor(1671~1734) : 영국 스코틀랜드의 무법자.

18) *Contes Populaires Malgaches*, pp. 9-10.

“Ce sont en somme des voleurs[Kotofetsy et Mahaka] très ordinaires, spirituels quelquefois, lâches et bas toujours, et sans ce côté généreux et chevaleresque qui nous rend parfois sympathiques nos légendaires bandits d’Europe. Cartouche et Mandrin, robin Hood ou Rob Roy, n’auraient certainement pas tué et emporté les quelques moutons de la vieille pauvre qui leur eût donné l’hospitalité.”

19) 페랑의 이와 같은 코토페치와 마하카에 대한 의견은 유럽 중심주의적이고 단선적이라 하겠다. 마다가스카르는 유럽과는 다른 문화 풍토를 기반으로 한다. 유럽처럼 세금을 착취하는 대귀족이나 전제군주가 존재하지 않았으니, 로빈 후드

마다가스카르는 작은 규모의 부족 국가들로 이루어져 있다가 18세기 메리나 왕국에 이르러서야 통일된다. 그러다 곧 19세기에 프랑스 식민지가 된 마다가스카르의 문화를 유럽식 잣대로 평가해서는 안 될 것이다. 페랑의 견해는 또한 식민사관에 입각했다는 인상을 주는데, 그도 그럴 것이 페랑의 이 글은 1893년에 출판되었고, 마다가스카르가 프랑스의 식민지가 된 해가 1897년으로 이미 프랑스가 마다가스카르를 식민화시키기 위해 마다가스카르에 여러 차례 전쟁을 일으키며 이 섬을 거의 무력화시켰던 시기였기 때문이다. 그러니 프랑스의 마다가스카르에 대한 정당한 역사관을 기대할 수 없는 시기였다.

마다가스카르 주민 대다수가 오스트로네시아어족Austronésie으로 말라요-폴리네시아어족Malayo-Polynesian이 여기에 속한다. 이 어족에 속하는 민족이 한 그룹은 태평양 쪽으로 다른 그룹은 인도양 쪽으로 나아가게 되었고, 인도양 쪽으로 향한 그룹이 지금의 마다가스카르에 이른 것²⁰⁾이다. 따라서 마다가스카르의 구전 이야기에 대한 평가나 이해의 기준은 오히려 오스트로네시아어족의 문화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 온당하다.

코토펜치와 마하카의 구전 텍스트를 본격적으로 다루기에 앞서 우선 구술 문학에 대한 텍스트의 성격에 대해 살펴볼 필요가 있다. 장태상은 텍스트 성격에 대해 “1) 분석의 대상이 되는 텍스트가 장시간에 걸쳐 구연된 내용을 요약해 놓은 것인가, 아니면 원래의 구연을 그대로 기록

와 같은 서민 영웅이나 기사도는 필요하지 않았다. 따라서 코토펜치와 마하카라는 인물을 분석하는 데 있어서 유럽 중심의 사고와 유럽적 인물을 통해 접근하는 것은 오류다.

20) *Abrégé d'histoire de Madagascar*, p. 11, 참조.

“On appelle Austronésiens les membres des populations qui parlent les langues de ce nom. Les langues austronésiennes se partagent en deux groupes. Celui qui nous intéresse est le malayo-polynésien qui est parlé dans une aire géographique qui s’étend des Philippines pour gagner l’Indonésie avant de se séparer. Les uns se sont dirigés vers l’océan Pacifique et les autres vers l’océan Indien pour aboutir à Madagascar.”

한 것인가, 2) 관련된 문화 집단이나 특정 집단 사이에서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지는 장르의 형식을 취하고 있는가, 3) 이미 정형화된 모델의 변이형인가, 4) 아니면 구연자에 의해, 혹은 다른 누군가에 의해 새로이 창조된 내용이나 기법을 포함하고 있는가.”²¹⁾ 네 가지 유형으로 분류해 놓았다. 코토펬치와 마하카는 이 네 가지에 모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 이들의 이야기는 요약과 구연의 기록 증거를 가지고 있으며, 카바리와 음피카바리라고 하는 집단 장르 형식을 취하고 있고, 정형화된 모델이 있지만, 지속적인 변이과정을 겪었고, 또한 구연자(구술자)에 의해 새로이 창조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들의 구전 이야기를 이해하는 데에 이러한 분류 형식의 유형을 적용하는 편이 타당하다.

먼저 코토펬치와 마하카에 대한 비교와 분석은 아시아의 신화 속 인물들인 ‘월젠과 에를릭’이나 ‘미륵과 석가’, 혹은 ‘대별왕과 소별왕’에 견줄 수 있다. 물론 그들은 인간 세상의 창세신들이다. 그러나 그들은 서로를 속이며 경쟁하고 때로는 협력의 관계를 이룬다. ‘둘일 때는 경쟁하고 협력하면 하나가 되는 관계, 이것이 세계의 운영 원리’²²⁾라는 것이다.

코토펬치와 마하카의 관계도 서로 속이며 경쟁하다가도 협력하는 이들 창세신의 관계와 유사하다. 창세신들은 형제 혹은 쌍둥이²³⁾로 알려져 있다. 따라서 이 창세신들은 달리 말하면, ‘형제 신화의 원형’으로 볼 수 있다. 코토펬치와 마하카도 쌍둥이나 친형제는 아니지만, 피로 맺어진 의형제²⁴⁾다.

21) 장태상, 「아프리카 구연문학과 신 구술성 : 방법론에 대한 모색」, 『한국아프리카학회지』, 제24권, 2006, p. 6.

22) 조현설, 『신화의 언어』, 한겨레출판, 2020, p. 20.

23) *Ibid.*, p. 15.

24) *Contes Populaires Malgaches*, p. 203.

“Quelques jours après, Kotofetsy et Mahaka se rencontrèrent et firent le serment de sang.”

며칠 후, 코토펬치와 마하카가 서로 만나 피로 맹세를 했다.

코토펬치와 마하카는 의형제가 되자마자 곧 서로를 속이기에 몰두했다. 마하카는 코토펬치에게 한 여자를 얻어주겠다고 하면서 캄캄한 방에 여자 대신 사나운 숫양을 넣어두었고, 코토펬치는 그 숫양 머리에 받치게 된다. 마하카에게 속은 코토펬치는 보복으로 마하카의 여동생을 방안에 데려다 놓은 후, 마하카에게 한 여자를 소개해주겠다고 한다.

얼마 후, 코토펬치는 마하카의 누이를 방안에 넣어두고는 그에게 말했다.

- 너를 위해 소녀를 데려다 놓았어. 가 봐. 하지만 그녀가 겁먹지 않게 불을 켜지 말고 들어가야 해.

마하카는 친구가 한 말을 지키며 어둠 속에서 소녀에게 다가갔다. 그녀가 갑자기 소리를 질렀다.

- 나가, 오빠. 그렇지 않으면, 마하카의 이름을 걸고 맹세하는데, 오빠한테 재앙이 닥칠 거야.

마하카는 금방 누이를 알아보았고, 코토펬치의 함정임을 알아챘다. 그는 즉시 복수를 결심했다.²⁵⁾

상대를 속이고 복수에 복수를 거듭하는 상황을 만들어 가는 것이 코토펬치와 마하카의 주된 서사구조다. 사실 코토펬치와 마하카는 이름에서부터 누군가를 속이기 위한 인물로 예정되었다. ‘Kotofetsy’에서 ‘koto’는 마다가스카르의 일반적인 사람의 이름이고 그 이름에 “술책을 쓰다, 속임수를 쓰다.”는 의미의 ‘fetsy’가 붙은 합성어다. ‘Mahaka’는 ‘당황하게 하는 사람, 속이는 사람’을 의미²⁶⁾한다.

25) *Ibid.*, pp. 203-204.

Quelques temps après, Kotofetsy mit la soeur de Mahaka dans une chambre et dit ensuite à celui-ci : «J'ai amené pour toi une jeune fille dans cette chambre. Va la retrouver ; mais entre sans lumière pour ne pas l'effaroucher. » Mahaka suivit les indications de son ami et s'approcha, dans l'obscurité, de la jeune fille. Tout à coup, celle-ci s'écria : «Sors, ô toi, ou j'en jure par Mahaka, il t'arrivera malheur.» Mahaka reconnut immédiatement sa soeur et devina le piège que lui avait tendu Kotofetsy. Il résolut de s'en venger sans plus tarder.

그들의 첫 만남은 장터로 가는 길목에서 이루어졌는데, 코토펬치는 수탉을, 마하카는 삼을 팔러 가는 길이었다. 마주친 그들은 서로의 물건을 교환하기로 했다. 그러나 교환한 물건을 가지고 각자 집으로 돌아와서 바구니를 열어 본 결과는 이와 같았다.

바구니를 열었을 때, 날아가는 까마귀가 수탉이었음을 알아차렸고, 삼은 진흙으로 만들어졌음을 알아차렸다. 상대방을 속이려 들었던 공범자 코토펬치와 마하카는 피로 맹세를 함으로써 친분을 맺을 방도를 찾기 시작했다.²⁷⁾

코토펬치와 마하카는 첫 만남에서 이미 자신들의 공통점을 발견하고 의형제를 맺어 서로 긴밀해질 빌미를 마련하려 한다. 비록 상대방에게 서로 속아 넘어갔지만, 그들은 첫눈에 서로가 ‘친구, 공모자, 공범자 compère’가 될 수 있음을 직감했다. 즉 코토펬치와 마하카는 둘만 있을 경우 서로를 속이려 하지만, 제삼자가 등장할 경우 그들은 협력 관계가 된다. 두 사기꾼의 명성을 들은 바 있던 한 남자가 그들과 겨루어 보고 싶어 그들을 찾아다니던 중 그들에게 당한 다음과 같은 일화가 있다.

- 코토펬치와 마하카라는 그 유명한 녀석들이 어디 사는지 아십니까? 저[한 남자]는 그들을 만나게 되면 매우 행복할 겁니다.
노인들이 그에게 집을 가리키며 대답했다.
- 저기가 그들의 집이야. 그런데 두려워 말고 옷을 모두 벗으시오.
당신이 없는 동안 우리가 그 옷을 봐주겠소.

26) *Ibid.*, p. 201.

“Composé des deux mots : *koto*, nom d’homme, et *fetsy*, rusé.”
“Celui[Mahaka] qui embrasse, qui trompe.”

27) *Contes Populaires Malgaches*, pp. 201~202.

En ouvrant les paniers, le coq se trouva être un corbeau qui s’envola, et la bêche, une bêche en argile. Nos deux compères qui avaient eu l’idée de se tromper l’un l’autre se mirent à se rechercher pour se lier par le serment de sang.

그 남자는 옷을 완전히 벗어 두 노인에게 맡기고 람바부터 살라카까지 모든 옷을 벗어놓았다. 그는 그 집에 도착해 코토펬치와 마하카에게 보자고 했다. 그 집의 거주자들이 대답했다.

- 그들을 보지 못했나요? 두 사람은 대문 옆에 있었는데.

그 남자는 어리둥절해져 코토펬치와 마하카에게 맡긴 옷을 찾으러 돌아왔다. 하지만 노인으로 변장했던 두 사기꾼은 더는 거기에 없었다. 남자는 마을 사람들의 조롱을 받으며 맨몸으로 집으로 돌아갔다. 그리고 남자는 코토펬치와 마하카가 사기꾼 중에서 으뜸이라는 사실을 인정했다.²⁸⁾

‘경쟁과 협력은 형제 혹은 쌍둥이가 생물학적 무의식의 형식으로 인류의 공감각 안에 정보화되어 있다는 것’²⁹⁾을 의미한다고 할 때, 코토펬치와 마하카의 관계도 이러한 맥락으로 이해할 수 있다. 즉 코토펬치와 마하카가 하는 일련의 행위는 ‘세계의 운영 원리’로 이해할 수 있겠다. 그들은 누가 먼저라고 할 것 없이 서로 상대를 속이기 위한 경쟁을 하다가도, 필요할 경우 약속이라도 하듯이 협력 관계로 돌아선다. 미리 계획하거나 약속한 것은 전혀 없다. ‘인류의 공감각’ 안에 정보화되어 새겨진 대로 움직였을 뿐이다. 따라서 페랑의 주장대로 코토펬치와 마

28) *Ibid.*, pp. 238-239.

«Savez-vous[deux vieux], leur demanda-t-il[un homme], où habitent les deux célèbres coquins Kotofetsy et Mahaka? Je serai fort heureux de faire leur connaissance.»— «Voici leur maison, là-bas, répondirent les vieillards en lui montrant une case; mais quittez tous vos vêtements de peur qu'ils ne vous les prennent; nous les garderons pendant votre absence.» L'homme se dévêtit complètement et laissa tous ses vêtements, du lamba au salaka à la garde des deux vieux. Quand il arriva dans la case il demanda à voir Kotofetsy et Mahaka : « Vous ne les avez pas vus, dirent les habitants de la case? Ce sont ces deux individus qui étaient à côté de la porte.» L'homme, ahuri, retourna chercher ses vêtements qu'il avait confiés à Kotofetsy et Mahaka eux-mêmes; mais les deux compères qui s'étaient déguisés en vieillards n'étaient plus là. Il retourna chez lui, nu, poursuivi par les huées des gens du village et avoua que Kotofetsy et Mahaka étaient des maîtres fourbes.

29) 『신화의 언어』, p. 20.

하카를 전설 속 기사도적 영웅인 로빈 후드와 같은 인물과 비교하기보다는 언급했듯이 ‘형제 신화’에서 그 원형을 발견하는 편이 타당하다.

또한, 위의 경우가 동양에서의 ‘형제 신화’의 원형이라면 이러한 원형을 서양에서는 기독교 창세신화의 형제 ‘카인과 아벨’ 그리고 그리스 신화 속 쌍둥이 형제 ‘레무스와 로물루스’에서 찾아볼 수 있다. 그런데 이들 형제 신화에서는 ‘형제 살해’의 서사가 반드시 등장한다. 마찬가지로 서로 경쟁과 협력을 거듭하던 의형제 코토펬치와 마하카는 마침내 상대를 죽이기로 한다.

마하카는 코토펬치를 죽일 계획을 세웠다. [...] 얼마 후 코토펬치가 나타나 마하카가 준 쌀이 어디에 있는지 물었다. 노파가 쌀이 있는 곳을 가리켰다. 코토펬치는 쌀에 독을 부었다. 그러는 동안 마하카가 문에 나타나 투창 한 방으로 코토펬치를 죽였다. [...] 코토펬치가 넣은 독으로 그[마하카]는 죽었다.³⁰⁾

‘경쟁→협력→갈등→살해’의 서사구조는 동서양을 막론하고 형제 신화에서 꾸준히 발견되며 코토펬치와 마하카에서 있어서도 마찬가지다. 따라서 마다가스카르의 전설 속 두 인물 ‘코토펬치와 마하카’는 로빈 후드와 같은 서양의 의적에게서 그 원형을 찾기보다는 오히려 동서양의 보편적 ‘형제살해신화’에서 그 원형을 발견할 수 있다. 차이가 있다면 코토펬치와 마하카는 둘 다 카인이고 로물루스라는 점이다.

그런데 왜 코토펬치와 마하카의 이야기를 그들을 모두 죽임으로써 끝내고 있는가? 프랑스 아카데미 회원이자 세네갈 초대 대통령이었던

30) *Contes Populaires Malgaches*, pp. 246~247.

Il[Mahaka] se proposait de faire mourir Kotofetsy. [...] Quelques instants après, Kotofetsy se présente et demande où se trouve la part de riz de Mahaka. La vieille la lui montre et Kotofetsy y verse un poison mortel. [...] . Sur ces entrefaites, Mahaka se présente à la porte et tue Kotofetsy d'un coup de sagaie : [...]. [...] Le poison mortel mis par Kotofetsy faisait son effet, et il[Mahaka] mourut.

제삼자에게 잔혹할 정도의 장난을 치고 있지만, 그 기저에는 유희성이 내포된다. 그런데 우선 생각해야 할 것이 ‘놀이’와 ‘장난’ 그리고 ‘즐거움’과 ‘유희’의 구분이다. 코토페치와 마하카의 행위는 ‘놀이’가 아니라 ‘장난’이다. 네덜란드 학자 요한 하위징아(Johan Huizinga(1872-1945)에 따르면, ‘놀이는 의례보다 먼저 온 것’³²⁾으로 ‘의례는 아주 고상하고 아주 성스러운 진지한 행위’³³⁾다. 그러므로 의례의 전신으로 보는 놀이에는 규칙이 있고, 진지함과 성스러움이 내재 되어있다.

또한, 하위징아는 “놀이는 특정 시간과 공간 내에서 벌어지는 자발적 행동 혹은 몰입 행위로서, 자유롭게 받아들여진 규칙을 따르되 그 규칙의 적용은 아주 엄격하며, 놀이 그 자체에 목적이 있고, ‘일상생활’과는 다른 긴장, 즐거움, 의식을 수반한다.”³⁴⁾고 정의했다. 반면에 코토페치와 마하카의 ‘장난’에는 이러한 규칙성이나 성스러움, 진지함은 찾아볼 수 없다. 단지 자기들의 재미와 이익추구를 위한 잔혹한 ‘유희’만이 실재한다. 여기서 유희는 하위징아가 정의한 놀이가 주는 긍정적, 일상적 즐거움이 아닌, 악의 본능에 따른 쾌락의 추구라 정의하고자 한다.

따라서 본 장에서는 하위징아의 놀이와 코토페치와 마하카의 장난을 구분(놀이-즐거움 ≠ 장난-유희)하여 코토페치와 마하카 이야기 속 악의 유희성을 중심으로 연구를 전개하고자 한다.

그들의 장난은 처음에는 단순히 상대방을 속이거나 허풍을 떠는 것에서부터 출발했다. 이들의 장난은 치명적이지 않아서 그저 웃고 즐길 수 있는 수준이었다. 이와 관련된 일화를 보자면 다음과 같다.

마다가스카르에는 여전히 남아 있는 장례식 예법에는 조문객에게 암탉 같은 가금류를 나누어주는 풍습이 있다. 코토페치와 마하카도 어느

32) 요한 하위징아, 『놀이하는 인간 호모 루덴스』, 이종인 역, 연암서가, 2020(개정판), p. 61.

“[...] 먼저 놀이가 있었고 의례는 그다음에 왔다.”

33) 『놀이하는 인간 호모 루덴스』, p. 61.

34) *Ibid.*, p. 80.

날 장례식에 참석하게 되었고, 당연히 암탉을 답례로 받을 줄 알았지만, 암탉이 한 마리밖에 남지 않아 둘은 경쟁을 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다. 그래서 가장 그럴듯한 꿈을 꾸고 이야기를 한 자가 암탉을 차지하기로 하는 내기를 하게 되고, 다음날 둘은 다시 만나 꿈 이야기를 한다.

마침내 코토페치가 이야기를 시작했다.

- 나는 하늘에 올라간 꿈을 꾸었어. 네가 나를 절대로 잡을 수 없었어. 마하카가 말했다.

- 나 역시 네가 하늘에 올라간 꿈을 꾸었어. 그런데 나는 너를 잡을 수 없었어. 그래서 나는 생각했어. 이 사람은 절대로 다시 돌아올 수 없을 만큼 높이 올라가네 하고. 또한, 나는 너를 다시는 볼 수 없으리라 생각하면서 암탉을 먹었지. 코토페치는 당황해하며 자기가 놀림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차렸다.³⁵⁾

코토페치와 마하카의 위의 ‘조롱하기’와 ‘허풍 시합’³⁶⁾의 일화는 사실 ‘다양한 문화권에서 상당한 위치를 차지’³⁷⁾한다. 조롱하기와 허풍 시합을 두고 지칭하는 말이 여러 문화권에 존재하는 데, 그 말들의 의미 들은 ‘무엇을 두고 경쟁하다’, ‘어떤 것에서 어떤 사람보다 우월하다’, ‘좋은 명성을 두고 경쟁하다’, ‘자랑하다’³⁸⁾ 등이며 이러한 ‘문화적 과

35) *Contes Populaires Malgaches*, pp. 224~225.

Enfin, Kotofetsy prit la parole et dit : «J'ai rêvé que je montais au ciel et que tu ne pouvais jamais m'atteindre.» — «J'ai rêvé aussi, dit Mahaka, que tu montais au ciel et que je ne pouvais t'atteindre. Et je me disais : cet homme monte si haut qu'il ne reviendra jamais. Aussi ai-je mangé la volaille, pensant que je ne te reverrai plus. » Kotofetsy, déconcerté, s'aperçut qu'on s'était moqué de lui.

36) 각주 10번 코토페치와 마하카의 ‘허풍 시합’ 일화를 참조할 것.

37) 『놀이하는 인간 호모 루덴스』, p. 143.

38) *Ibid.*, pp. 145~150 참조.

예를 들어, 겸양시합(중국 : 도치된 형태의 자랑하기 게임), 무아카라(아라비아 : 상처를 주다, 훼손하다), 무파카라(아라비아 : 자랑하다), 이암보스(그리스 : 조롱), 마니프나드르(스칸디나비아 : 남자들의 겨루기) 등이 있다.

시 요소'에는 대체로 적수에 대한 조롱이 뒤따른다. 이러한 보편성은 인류에게 '인지혁명'³⁹⁾의 변화가 일어나고, 구술 문학과 문화의 근간이 되는 신화의 보편성에 대한 증거로서 이 두 인물은 마다가스카르 구술 문학과 문화를 증험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

코토펜치와 마하카의 또 다른 범주의 일화들, 예를 들어 '제66화, 부자를 상대로 한 코토펜치와 마하카의 사기 *Tromperie de Kotofetsy et Mahaka envers un homme riche*'⁴⁰⁾, '제68화 부유한 노인의 양자가 된 마하카 *Mahaka se fait adopter par un riche vieillard*'⁴¹⁾, '제69화, 코토펜치와 마하카는 어떻게 부자를 속였는가 *Comment Kotofetsy et Mahaka trompèrent un homme riche*'⁴²⁾ 등에서는 부유한 사람을 속여 그의 재산을 취하기도 하는, 마치 의적과 같은 행동을 보이며 보거나(음피카바리의 공연), 듣거나(음피카바리의 말), 읽는(말라가시어로 쓰인 혹은 프랑스어로 번역된 글) 이들에게 통쾌함을 주었다. 이 일화들 때문에 가브리엘 페랑은 코토펜치와 마하카를 로빈 후드와 같은 의적에 견주며, 이 두 인물의 구술 문학과 문화적 가치를 간과하게 하는 오류를 범했다. 따라서 코토펜치와 마하카를 “인류 초기의 이야기 구조에는 동서양의 차이가 있을 리 없다.”⁴³⁾는 맥락에서, 문학의 보편성이 보여주는 구술 문학의 서사구조와 원형을 간직하고 있는 인물로 이해하는 것이 타당하다. 그런데 이들의 장난은 도를 지나쳐 '살인'으로 까지 이어진다.

39) 『신화의 언어』, p. 8.

“신화는 인류 보편의 언어다. 신화를 읽다 보면 대략 7만 년 전쯤 우리를 사피엔스의 뇌에서 '인지혁명'이라는 변화가 일어났을 때 우리가 세계를 어떻게 보았고, 어떻게 이야기했는지 알 수 있다.”

40) *Contes Populaires Malgaches*, pp. 213~214.

41) *Ibid.*, pp. 218~219.

42) *Ibid.*, pp. 221~222.

43) 『신화의 언어』, p. 8, 참조 인용.

“신화는 인류 최초의 이야기 형식이기 때문에 동서양의 차이가 있을 리 없다.”

어느 날 코토펬치와 마하카는 들판에서 양을 돌보는 노파를 만났다. 그들은 말했다.

- 라포치베⁴⁴⁾, 양을 돌보는 데 힘들 텐데, 원하신다면 일을 상당히 편리하게 하는 방법을 가르쳐드릴게요.

- 좋지. 젊은이들, 그게 뭔데?

- 각 양의 뿔을 하나씩 연결해서 할머니 허리에 묶으세요. 그러면 양들은 할머니의 곁을 떠날 수 없어요.

할머니는 그 말을 실행에 옮겼다. 그리고 두 명의 사기꾼은 할머니의 허리띠에 양들을 차례로 연결한 줄 끝을 묶었다. 그리고 나서 그들은 아주 사나운 개를 양들에게 돌진하게 했다. 양들은 개가 짖는 소리를 듣자마자 달아나며 라포치베를 끌고 갔다. 할머니는 허리에 묶었던 줄에 목이 졸려 죽었다. 두 명의 사기꾼은 할머니의 죽음을 즐거워하면서 양 떼를 가져가 버렸다.⁴⁵⁾

코토펬치와 마하카는 양을 얻기 위해 할머니를 죽인다. 그리고 나서 둘은 할머니의 죽음을 ‘즐거워enchantés’한다. 코토펬치와 마하카의 이야기는 구전으로 전해지고, 구술하는 것을 받아적고, 이것을 다시 다른 언어로 번역한 것이기 때문에 세부적 상황과 심리묘사는 기대할 수 없다. 그러므로 할머니의 죽음을 즐거워하는 그들의 행동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미하일 바흐친Michail Bachtin(1895~1975)의 ‘카니발 이론’을

44) ‘라포치베(Rafotsibe)’는 노파를 의미함.

45) *Contes Populaires Malgaches*, pp. 216~217.

KOTOFETSY et Mahaka rencontrèrent, un jour, une vieille qui gardait des moutons aux champs. « Rafotsibe, lui dirent-ils, puisque tes moutons sont si difficiles à garder, nous allons, si tu veux, t'indiquer un moyen qui simplifiera beaucoup ta tâche. » — « Volontiers, mes enfants. Quel est-il? » — « Attache-les chacun à une corde que tu te passeras autour de ta taille. De cette façon, ils ne pourront pas s'éloigner. » La vieille mit le conseil en pratique ; et les deux compères attachèrent à sa ceinture l'extrémité de la corde qui liait les moutons l'un à l'autre. Puis, ils lancèrent un chien très méchant sur les moutons. Dès que les animaux l'entendirent aboyer, ils prirent la fuite en entraînant Rafotsibe. Elle fut étranglée par la corde qui lui serrait la taille; et les deux voleurs, enchantés de sa mort, s'emparèrent du troupeau.

살펴볼 필요가 있다.

바흐친에 따르면, “공식적인 축제와는 반대로 카니발은 당시 지배적인 진리와 기존의 사회질서로부터 한시적이거나 해방을 의미하고, 동시에 한시적이거나 기존의 위계질서와 모든 특권을 가진 사람들, 당시의 규범들과 금기 사항들로부터의 해방을 의미한다.”⁴⁶⁾ 또한, ‘공식적인 거의 모든 행사에서는 웃음이 거의 사라졌지만, 비공식적인 행사나 카니발과 같은 민중들의 축제 시의 웃음까지 사라진 것은 아니’⁴⁷⁾라고 할 때, 코토페치와 마하카는 ‘유희하는 인간’의 전형으로, 일종의 그들만의 카니발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코토페치와 마하카의 ‘장난’과 ‘살해’의 대상은 대부분 늙은 여성, ‘노파’다. 늙은 남성, ‘노인’을 죽였다는 일화는 없다. 이러한 이들의 만행에 어떠한 처벌이나 형벌이 가해졌다는 내용은 없다. 이러한 사실은 ‘인도·유럽 공통조어 신화가 본질적으로 남성 중심적’⁴⁸⁾이라 할 때, 오스트로네시아어족에 속하는 마다가스카르에서 노파만을 살해 대상으로 삼았다는 것 역시 마다가스카르가 남성 중심적 사회⁴⁹⁾라는 사실을 시사한다.

또한, 이들의 이야기에도 ‘부모살해’가 등장하는 데, ‘부친살해’가 아닌 ‘모친살해’다.

마하카는 코토페치에게 각자의 어머니를 죽이자고 제안했다. 코토페치는 이 제안을 받아들였다. 이들은 각자의 어머니를 데리고 강가로 왔다. 마하카는 양의 피를 가져와서는 어머니의 목을 잡고 죽이는 시늉을 했다. 그러고서 그는 양의 피를 강에 버렸다. 강의 하류에 있던 코토페치는 핏빛 강물을 보면서 자기 어머니의 목을 뱉다. 마하카가

46) 류중영, 『웃음의 미학』, 유로서적, 2005, p. 15, 재인용.

47) *Ibid.*, pp. 93-94.

48) 데이비드 W. 앤서니, 『말, 바퀴, 언어』, 공원국 역, 에코리브르, 2015, p. 203.

49) 마다가스카르가 남성 중심 사회라는 증거는 이 외에도, 앞서 언급한 ‘음피카바리’도 남성만이 가능하다는 것과 구술 이야기 속에 다수 나타난다.

말했다.

- 지금, 우리 어머니들을 부활시키자. 사실, 네 어머니는 살아계시잖아. (사실 마하카는 자기 어머니를 죽이는 척만 했다.)

그러나 코토펬치 어머니의 목숨은 돌아오게 할 수 없었다. 코토펬치는 자기에게 했던 장난을 알아차리고는 곧 이어질 복수를 준비했다. 마하카의 어머니가 뜰에서 채소를 따던 어느 날, 코토펬치는 친구를 찾아가 그에게 말했다.

- 멧돼지가 너희 뜰을 엉망으로 만들고 있어. 투창을 들어, 그리고 식물들 사이에 숨어 있어. 넌 그 멧돼지를 틀림없이 붙잡을 수 있을 거야⁵⁰⁾.

마하카는 코토펬치의 술책에 속아서 투창으로 어머니를 찔러 죽였다.

그래서 이들 둘은 아무도 어머니가 없게 되었다.⁵¹⁾

가브리엘 페랑의 『말라가시 대중 콩트』는 모두 6장에 82개의 이야기로 구성되어 있고, 그 가운데 코토펬치와 마하카의 이야기는 5장 전체를 차지하며, 20개의 일화가 소개되어 있다. 이것은 전체 분량에 있어서

50) ‘안타이모로나족(Antaimorona)’은 주로 멧돼지를 사냥할 때 투창을 사용하는데, 투창은 그들이 아주 잘 다루는 무기다.

51) *Contes Populaires Malgaches*, pp. 207~208.

MAHAKA proposa à Kotofetsy de tuer chacun leur mère. Ce dernier accepta, et ils se rendirent tous deux avec leur mère sur le bord d'une rivière. Mahaka, qui avait emporté du sang de mouton, prit sa mère par le cou et fit semblant de la tuer. En même temps, il jetait le sang du mouton dans la rivière. Kotofetsy, qui se trouvait en aval de lui, voyant l'eau de la rivière teinte de sang, égorgea sa mère : «Maintenant, dit Mahaka, nous allons ressusciter nos mères.» La sienne, en effet, était vivante (il n'avait fait, que semblant de la tuer) ; mais celle de Kotofetsy ne put pas être rappelée à la vie. Ce dernier, comprenant qu'on s'était joué de lui, prit bientôt après sa revanche. Un jour que la mère de Mahaka cueillait des légumes dans son jardin, Kotofetsy alla chercher son ami et lui dit : «Un sanglier est en train de dévaster ton jardin. Prends une sagaie, et, en rampant dans les herbes, tu l'atteindras sûrement.» Mahaka suivi ce perfide conseil et frappa de sa sagaie sa mère qui en mourut. Ils n'eurent donc plus de mère ni l'un ni l'autre.

상당한 부분에 해당하며, 이들의 존재가 단순히 악당으로만 기억되거나 전해져서는 안 되는 이유 중 하나다. 코토펬치와 마하카는 여러 신화에 등장하는 ‘형제 신화’, 다양한 문화권에 나타나는 ‘보편적 관습의 구현’을 보여주는 함축적 인물들로, 그들의 20개의 일화에는 마다가스카르의 다양한 관습과 풍습, 문화적·신화적 서사구조의 보편적 원형을 살펴볼 수 있는 중요한 사료가 내포되어 있다.

이들의 이야기가 오랜 세월 이어지고 있는 이유에는 구술 문학이 지닌 ‘텍스트의 유형성(tangibility)’으로 설명할 수 있을 것이다. 장태상은 “유형성은 반복되어 재생될 수 있는 실체로서 마치 문자문학의 입장에서 서처럼 시공을 초월한 텍스트의 존재를 실현한다.”⁵²⁾고 정의했다. 이러한 맥락에서 코토펬치와 마하카의 원형적 인물과 이야기는 초월적 텍스트의 존재를 보존하고 실현하고 있음으로써 그 중요성을 입증하고 하고 있다. 물론 ‘살인’이나 ‘존속살해’와 같은 잔인한 이야기는 배제하고 그들이 보여주는 유희성에 중점을 두고, 특히 말라가시어를 보존해야 하는 ‘음피카바리’의 임무를 지키며 ‘언어(랑그langue가 아닌 빠롤parole)’로 마다가스카르의 오랜 풍습을 지켜내고 있다.

III. 결론

영국의 역사가 에릭 홉스봄Eric Hobsbawm은 “역사학자들은 심각한 편견과 민족주의의 원료를 제공할 운명을 타고났다.”⁵³⁾고 말한 바 있다. 사실 가브리엘 페랑이 이 마다가스카르의 콩트를 수집하고 번역할 당시만 해도 프랑스가 마다가스카르를 식민지배하에 넣기 위한 수단으로 이용하려 했을 수 있다. 그 흔적은 그의 작가 서문에서도 드러나며⁵⁴⁾, 또

52) 「아프리카 구연문학과 신 구술성 : 방법론에 대한 모색」 p. 6.

53) 『말, 바퀴, 언어』, p. 657, 재인용.

54) 코토펬치와 마하카의 분석에 있어서 유럽 문화중심으로 보려 한 것도 그 예다.

한, 그는 마다가스카르의 다른 콩트의 경우도 프랑스의 라퐁텐 우화와 비슷한 내용을 보고, 그것이 프랑스에서 건너온 것으로 판단했었다.

6화, 14화 그리고 19화의 이야기는 ‘라퐁텐 우화’의 세 가지 이야기와 놀라울 정도로 비슷하다. 서로의 이야기가 딱 일치하고 있던 것이다. 우선 나는 마다가스카르의 인물에 대해 몇 가지 의심을 품고 있었다.⁵⁵⁾

이러한 폐량의 판단은 홉스봄의 주장대로, 심각한 편견과 민족주의 정신이 반영된 것이라 하겠다. 분명 인류가 정착하고 살아가는 곳에는 그곳의 독특한 문화가 생겨난다. 다만 그 문화가 문자로 기록되는 것이 늦을 뿐이다. 문자 기록으로 판단하는 것은 문자 문명이 먼저 발전한 나라가 가질 수 있는 심각한 편견이자 오류다.

특히, 흑아프리카에서 ‘말’은 그 무엇보다도 풍습 그리고 전통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 세네갈 출신의 유명한 시인 비라고 디오프Birago Diop (1906~1989)는 그의 시에서 “더 자주 들어라, 존재들보다 사물들을. 불의 목소리가 들린다. 물의 목소리를 들어라. 바람 속에서 들어라, 오염하는 덩불 소리를.”⁵⁶⁾라며 말과 소리의 중요성에 대해 강조했다. 또한, 디오프는 그러한 자연의 소리는 “조상들의 숨결이며, 죽은 조상들의 숨결은 떠나지 않았다.”⁵⁷⁾고 하며, 조상으로부터 끊임없이 전해오는 숨결

55) *Contes Populaires Malgaches*, préface, p. 4.

Les contes n^{os} 6, 14 et 19 ressemblent d'une façon si frappante aux trois fables de la Fontaine qui leur correspondent, que j'ai eu d'abord quelques doutes sur leur caractère malgache.

56) *Tradition et littérature orale en Afrique noire*, p. 25.

“Birago Diop, l'un des plus importants poètes sénégalais, dit : *Écoute plus souvent / Les choses que les êtres. / La voix du feu s'entend, / Entends la voix de l'eau, / Écoute dans le vent le buisson en sanglots.*”

57) *Ibid.*, p. 25.

“*C'est le souffle des ancêtres, / le souffle des ancêtres morts, / qui ne sont pas*

(말)의 가치를 되새겼다.

인류는 문자 이전에 말로 자신들의 문화를 이어왔고, 여전히 그러한 문화를 유지하고 있는 다수의 인종이 존재한다. 우리는 문자를 가지고 있는 민족으로 고유문자에 대한 자부심을 지니는 것은 당연하다.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범할 수 있는 오류 가운데 하나는 문자가 없는 민족을 폄훼하는 태도일 것이다.

그러나 다행스러운 것은 가브리엘 페랑은 이러한 자기의 판단이 잘못된 것임을 깨닫고, 본인의 역할을 이야기의 수집가와 번역가로 한정하면서, 마다가스카르의 민담과 전통의 기원 연구에 대해서 유보적인 태도를 보였다.

주석은 마다가스카르 이야기의 이해에 필요한 설명만을 넣었다. 몇몇 민속학자처럼 나는 다음의 콩트와 연결될 수 있는 동서양의 콩트를 비교하지 않았다. 수집가와 번역가라는 조출한 역할로 만족하기 때문이다. 나는 더 유능한 민속학자들에게 마다가스카르의 민담과 전통의 기원과 유사점에 대한 연구를 넘기도록 하겠다.⁵⁸⁾

문학 장르에 있어서 그것이 문자로 기록되었는가 혹은 구술로 전승되었는가를 기준으로 어느 한 국가나 민족의 문화적 가치를 판단할 수는 없다. 마다가스카르는 비록 문자는 뒤늦게 생겼지만, 분명히 인류 보편적 신화와 문화, 그리고 문학의 서사구조가 자생적으로 생겨난 국가

partis, / qui ne sont pas sous terre, / qui ne sont pas morts.”

58) *Contes Populaires Malgaches*, préface, p. 12.

Les notes ne contiennent que les explications nécessaires à l'intelligence du récit malgache. A l'exemple de certains folkloristes, je me suis abstenu de toute comparaison entre les contes ci-après et ceux d'Orient ou d'Occident dont ils pouvaient être rapprochés, me contentant du rôle modeste de collectionneur et de traducteur. Je laisse à de plus compétents confrères en folk-lore, le soin de rechercher les origines et les parentés de ces quelques contes et traditions populaires de la grande île africaine.

고, 구술 문학 속에 등장하는 인물 코토펬치와 마하카는 인류의 보편적인 근원의 원형을 함축하고 있는 인물들로 다른 문화권의 전설 속 인물이 주는 영향력과 동등한 가치를 지닌다.

사실 코토펬치와 마하카의 원형 찾기도 동서양의 문화를 먼저 익히고 그러한 상황에 길든 입장에서 그 원형의 기준을 동서양의 신화를 기준으로 했다는 사실을 인정한다. 그러나 어느 문화에 우선순위를 두는 것이 애초에 오류이며, 문화와 문학의 발생은 ‘인지혁명’에 입각한 인류 보편적 현상임을 밝히기 위한 과정이었음을 밝히는 바이다. 따라서 본 연구도 폐랑의 고백처럼 마다가스카르의 문화와 구술 문학에 대한 극히 일부만을 다루었을 뿐이며, 더욱 심화 된 연구는 다음으로 이어가고자 한다.

■ 참고문헌

<논문>

- 김대행, 「現代 社會와 口碑文學 研究」, 『口碑文學研究』, Vol.15, 2002.
- 김영희, 「구비문학(口碑文學)이라는 개념과 범주의 형성 과정 탐색」, 『열상고전연구』, Vol.47, 2015.
- 김현숙, 「마다가스카르의 문학과 정체성 : 시인 라베아리벨로이 작품을 중심으로」, 아프리카 학회지 제27집, 2005.
- 장용규, 「아프리카 인류학과 전통종교의 창조」, 『한국아프리카학회지』, 제24권, 2006.
- 장태상, 「민족시학과 구연문학」, 『외국문학연구』, 제7호, 2000.
- _____, 「아프리카의 구연 문학과 신 구술성 : 방법론에 대한 모색」, 『한국아프리카학회지』, 제24권, 2006.
- 최준수, 「마다가스카르의 언어 정책과 말라가시어 진흥을 위한 일반언어학적 변론」, 『한국아프리카학회지』, 제27권, 2008.

<단행본>

- 김용환, 엘리아데, 『말리노프스키의 문화인류학』, 살림, 2004.
- 레비스트로스, 클로드, 『신화학 I』, 임봉길 역, 한길사, 2005.
- _____, 『신화학 II』, 임봉길 역, 한길사, 2008.
- 리콤피르, 폴, 『악의 상징』, 양명수 역, 문학과 지성사, 1995.
- 류종영, 『웃음의 미학』, 유로서적, 2005.
- 앤서니, 데이비드 W, 『말, 바퀴, 언어』, 공원국 역, 에코리브르, 2015.
- 조현설, 『신화의 언어』, 한겨레출판, 2020.
- 탁인숙, 『신은 왜 인간을 떠났을까』, 여름언덕, 2004.
- 캠벨, 죠셉, 『신의 가면 IV : 창작 신화』, 정영목 역, 까치글방, 2002.
- 파런더, 지오프레이, 『아프리카 신화』, 심재훈 역, 범우사, 2006.
- 하위징아, 요한 『놀이하는 인간 호모 루덴스』, 이종인 역, 연암서가,

2020(개정판).

Campbell, Gwyn, *Bondage and the Environment in the Indian Ocean World*, palgrave, 2018.

Ferrand, Gabriel, *Contes Populaires, Malgaches*, Ernest Leroux, éditeur, 1893.

Ibáñez, Mario Corcuera, *Tradition et littérature orale en afrique noire, Parole et réalité*, L'Harmattan, 2009.

Leiris, Michel, *Cinq études d'ethnologie*, Denoël, 1981.

_____, *Les écrivains noirs de la langue française*, Howard University press, 1971.

Malande, Ange-Séverin, *Michel Leiris et la théorie des arts africains*, L'Harmattan, 2003.

Mayer, Jean-Paul, *Dictionnaire Insolite de Madagascar*, Cosmopole, 2013.

Naal, Gérard, *Abrégé d'histoire de Madagascar*, L'Harmattan, 2015.

Sellier, Jean, *Atlas des Peuples D'Afrique*, La Découverte, 2006.

<인터넷 자료 - Ebook 및 논문>

http://www.unesco.org/new/fileadmin/MULTIMEDIA/HQ/CI/CI/pdf/mo/w/nomination_forms/madagascar_the_kabary.pdf

(검색일 : 2019.09.08)

<http://zama-diaspora.com/wp-content/uploads/2016/08/Zama-Domenichini-16-Histoire-et-culture-malgaches.pdf> (검색일 : 2019.10.10)

<https://www.axl.cefam.ulaval.ca/afrique/madagascar-arrete-14631-2013.htm>
(검색일 : 2020.03.01)

❖ ABSTRACT

Archetypes of Legendary Characters and
“Evil Playfulness” in the Oral Literature of
Madagascar

Cho, Jisook
Gachon University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main characters and their “evil playfulness” in *Contes Populaires Malgaches* (1893), a collection of oral stories from Madagascar published in France in the 19th century. We will focus on the evil playfulness of *Kotofetsy* and *Mahaka*, characters in the story of the Merinas (also known as Imerinas) who are one of Madagascar’s main peoples. *Kotofetsy* and *Mahaka* are tricksters, or tricky villains. They deceive, conspire, or brag to transmute evil into “fun,” through impressive, but sly and even cruel exploits. The oral stories in which they are protagonists reveal their brutal playfulness and Madagascar’s unique oral literature and cultural traditions. More importantly, however, *Kotofetsy* and *Mahaka* are figures that embody the universal archetypes of many cultures.

Key Words : oral literature, evil, playfulness, universal archetype, narrative structure, mythology

■ 논문접수일 : 2020. 11. 10

■ 심사완료일 : 2020. 12. 13

■ 게재확정일 : 2020. 12. 14